

1월 15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월 15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뉴욕 급락..`금융불안 부활-소매판매 약화` [다우: 8,200.14pt (-2.94%)]</p>	<p>주요 지수는 올들어 가장 깊은 낙폭을 기록하며 뉴욕 주식시장이 급락세로 마쳤음. 씨티그룹이 추가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와 도이체뱅크 등 은행들의 실적악화와 증자, 배당삭감 전망이 쏟아지면서 금융불안감이 부활, 투자심리를 위축시켰음.</p>
<p>씨티 구조조정-도이체뱅크 분기손실 `사상 최대`</p>	<p>추가 구조조정 전망이 제기된 씨티그룹(C)이 23.2% 폭락했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씨티가 앞서 발표한 주식영업 부문인 스미스바니 뿐만 아니라 소매금융 및 신용카드 사업 부문 등도 분리하는 등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도이체뱅크(DB)역시 사상 최대 규모의 분기 손실 발표하면서 9.2% 급락했음. 도이체뱅크는 이날 금융위기 여파로 4분기 48억유로(63억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고 이는 사상 최대 분기 손실임.</p>
<p>베이지북 "美 전지역 경제침화"</p>	<p>미국의 경제는 새해 들어서도 하강 국면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준은 미국내 12개 지역 연방은행의 경제조사를 종합해 만든 베이지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음. 베이지북은 "최근까지 그나마 견조했던 서비스와 에너지, 상업 부동산도 경기후퇴의 그림자를 피하지 못했다"고 전했다.</p>
<p>기업재고 `3개월째 감소`-판매, 사상최대 급감</p>	<p>기업재고는 3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기업판매는 사상 최대폭으로 감소했음. 전후 최악의 글로벌 경기후퇴와 소비 위축에 대비해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고 있지만 판매의 감소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상무부는 11월 기업재고가 0.7% 줄었다고 밝혔음. 이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0.5%보다 큰 감소폭임. 이로써 기업재고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음.</p>
<p>국제유가, 美 재고증가로 다시 하락..37.28弗 마감[WTI: \$37.28 (-\$0.5)]</p>	<p>미국의 난방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치며 국제유가가 반등 하루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음.</p>
<p>유럽증시 `폭락`...6일 연속 하락세</p>	<p>유럽 증시가 14일 폭락하며 6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감.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의 핵심지수 FTSE100은 전일대비 4.97% 하락한 4180.64로 마감. 프랑스 파리증권거래소의 CAC40 주가지수는 4.56% 하락한 3052.00으로 장을 마쳤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증권거래소의 DAX 주가지수도 4.63% 떨어진 4422.35로 장을 마감.</p>

제목	주요 내용
獨도이체뱅크 50여년만에 첫 연간 손실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뱅크가 지난해 4분기에 심각한 금융위기 이후 주식과 채권 트레이딩에서 48억 유로(63억 달러)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 전년도 10억 유로에 가까운 이익을 낸 것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손실을 낸 것.
中, 자동차·철강산업 지원한다	중국 정부가 고전하고 있는 자국 철강·자동차 산업 지원에 나섬. 중국 국무원은 14일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 등을 포함한 자동차와 철강 산업 지원책을 발표. 이날 발표한 지원책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달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엔진 1.6ℓ 미만의 소형 자동차의 판매세를 현행 10%에서 5%로 줄일 예정이며 중고차 소유자가 연비가 우수한 신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
일본 기업들, 감원 대신 일자리 나누기	일본 기업들이 일자리를 나눠 갖는 '워크 셰어링'을 잇따라 도입. 마쓰다는 감원 대신 일자리 나누기를 선택. 도요타는 공식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워크 셰어링을 도입한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음. 노조도 어떻게 해서든 일자리를 지키면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적극.
러시아車 솔레르즈, 쌍용SUV 생산권 인수 추진	러시아 자동차업체인 솔레르즈가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의 SUV 생산권을 인수하는 것을 추진중. 솔레르즈는 "쌍용차 모델에 대한 생산권과 관련 부품 기반 인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솔레르즈는 한국 회사에서 완전히 독립해 러시아에서 쌍용 모델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구체적인 인수 가격은 언급하지 않음
하이닉스 증자에 5조 쏠려	하이닉스반도체의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무려 5조원이 넘는 시중 유동자금이 몰렸음. 14일 오후 8시 현재 대표 주관사인 대우증권은 하이닉스반도체의 유상증자 일반공모 청약 잠정집계 결과 경쟁률이 16.38대 1을 기록. 하이닉스반도체의 유상증자에 이처럼 많은 자금이 몰린 데에는 무엇보다 차익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이며, 발행가인 5,400원은 이날 종가 6,730원에 비해 25% 가량 낮은 수준으로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가 상장되는 오는 30일 이후 주가가 5,400원보다 높게 유지되면 바로 차익 실현이 가능.
건설, 조선 살생부 가닥은 잡혔다... 그러나	건설사와 조선사에 대한 1차 구조조정 명단이 가시화되고 있음. 111개 신용평가 기업 중 건설사 10개안팎, 조선사 2~3개 정도가 채권단공동관리(워크아웃)나 퇴출 기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다만, 채권은행간 조정 과정에서 이견이 나올 수 있고 정치적 입김까지 작용할 경우 최종 구조조정 명단은 예상보다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